

테마칼럼

이호리의 초대

이재창의 회상

빛고을에 살며

김태권 회상보기

‘헬로(Hello)!’라고 말 시키지 말자



안톤 슈츠

한번쯤은 내 입장에서 상상해 보길 바란다. 당신이 외국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데 매일 수많은 아이들이 당신을 향해 “안녕!” 또는 “야(임마)!”라고 소리친다면 어떤 기분이 들지 말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중고칼럼



백남선

숲으로 나가 깊게 우거진 숲을 보다 가 신발 끈을 내리다보면, 손톱보다도 더 작은 잎이 햇빛을 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잎을 따라 주변을 둘러보면 키가 크고, 잎이 넓은 풀들이 햇빛을 비껴서서 작은 잎들이 올라와 있는 경이로움을 느끼게 된다.

양보를 선택하는 지혜

음이 없는 숲은 우리에게 더불어 하는 사람을 보게 한다. 가느다란 풀 잎 하나를 위하여 비스듬히 서 있는 줄기를 보면서 양보라는 낱말을 떠올리게 된다. 미우라 아야코는 결혼한 후에, 오래 되지 않아 하루, 하루가 무료해진 그녀는 남편을 졸라 구멍가게를 열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게를 찾아오는 주민들을 성실하게 대하였다. 자신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처럼 주민들의 편의를 우선 생각하면서 성실과 정직으로 구멍가게를 꾸려갔다.

미우라 아야코는 가게에 진열되는 상품을 줄여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손님 와서 물건을 찾으면, ‘저 가게’에 있으니 그리 가보라고 권하였다. 또 다른 손님이 와서 물건을 찾으면 ‘그 가게’에 있으니 그리 가보라고 권하였다. 그러면서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줄어 들게 되었고, 그녀에게는 잠시라도 책을 보거나 라디오를 들을 시간이 생기게 되었다. 그때, ‘소설을 한 번 써 보자’는 마음을 먹고 작품을 쓰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빙점’이었다. 만일, 그녀가 손님들이 줄어가는 이웃의 가게를 생각하지 못하였다면, 그래서 몰려오는 손님들을 졸라 받아들이려 하였다면 그녀는 ‘빙점’을 쓰지 못하였을 것이다. 양보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기쁨을 공유하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양보하셨다. 주님의 자기양보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사실, 자신의 탐욕에서, 독이 생기고, 이 웃을 생각할 때, 사랑이 피어난다. 양보는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만이 아니다. 우리는 양보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위하게 되며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누린다. 사랑만이 향유할 수 있는 양보는 삶을 위한 지혜이며,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라 하겠다. 오늘, 양보의 손을 내어 밀어 이웃을 만나 보자. (미문교회 목사)

바다 낚시꾼·선원 등에 GPS 부착 의무화 했으면

바다에서 일을 하다 보면 불의의 사고로 실종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사고가 나면 대부분 태풍과 해일 등에 의한 것이어서 헬리콥터나 구조선박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원양 어선이나 여객선, 화물선과 연근해 어선 등의 선원은 물론 관광객, 낚시꾼의 실종사고시 이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명조끼나 발목에 GPS, 즉 위성항법장치 등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했으면 좋겠다. 현재 GPS는 범죄자 재발방지를 위한 전자발찌나 반달곰 위치추적 등 다른 곳에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용하면서도 정작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신속히 구출하거나 실종자 수색에 도움이 되는 곳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이 안타까운 마음이다. ▲전혜옥·광주시 동구 서석동

가 친절한 마음에서 하는 인사가 아니라 일종의 놀이나 농담 같은 것으로 여기고 한다는데 있다. 누군가로부터 인사를 받고 바로 뒤에서 혹은 앞에서 깔깔거리는 웃음을 듣게 된다면 인사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나를 포함해 모두가 인사를 해놓고선 상대방의 면전에서 깔깔거리며 웃지는 않는다.

얼마 전 독일에 계신 부모님께서 나를 찾아 한국에 오셨다. 아름다운 남도를 보여드릴 겸 부모님을 모시고 운주사 나들이를 갔다. 때마침 따뜻한 가을 햇살이 멋들어진 빛나는 금요일로 유치원에서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꽤 많은 학생들이 소풍을 와 있었다. 운주사 앞 풀밭에 앉아 점심을 먹고 있던 아이들과 학생들이 우리를 발견하고는 하나둘씩 무리지어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 큰 소리는 예의 있게 인사하는 소리가 아니라 무례했고 한두 초등학생은 심지어 “헤이 유!”라고 하며 소리쳤다. 당연히 처음 친절히 손을 흔들어주시던 부모님께서도 결국에는 꽤나 당혹스러워 하셨다. “헤이 유(Hey You)!”를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야(임마)!’에 해당하는 말이다. 만약 한국인이 한국인에게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면 그냥은 못 지나갈 일일 것이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선생님들에게까지 화가 돌아갔을 터이다.

그러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던지 외국사람이란 자태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런 불공평한 상황에 놓이는지도 모르겠다. 모두들 재미로나 하는 아이들의 그런 언행이 외국인들에게는 모욕감까지도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 왜 아이들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한국인들은 한국의 예의 있는 매너에 낯선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교육에도 그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런 예의

범절 교육에는 외국들에게는 제외인가?

1844년 독일의 정신과 의사였던 하인리히 호프만 박사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 ‘스트루벨페터(Struwelpeter : 더벅머리 페터)’라는 그림책(한국에서도 이미 번역되어 출판되었다)을 직접 만들었다. 그 책은 몇 세대를 거치며 지금까지 150년이 넘도록 거의 모든 독일 가정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동화책으로 애용되고 있다.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세 명의 아이들이 지나가는 흑인을 가리키며 놀고 난 뒤 산타 클로스에 벌을 받아 큰 흑색 잉크병에 빠뜨려져 자신들이 놀렸던 흑인보다 더 까맣게 된다는 내용이다. 당시 호프만 박사는 아들에게 외국인이거나 자신과 다르게 생긴 사람을 손가락질하거나 놀리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했다. 이것이 바로 독일에서 150년 전부터 해온 예의교육의 하나라면 한국은 이와는 다른 것 같다.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내가 지나치다 본 아이를 둔 부모님은 자신의 아이가 영어를 배웠으니 가서 가서 ‘헬로’ 나 ‘하이’를 해보라며 아이를 내 앞으로 떠민다.

한번쯤은 내 입장에서 상상해 보길 바란다. 당신이 외국의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데 매일같이 한국어를 좀 배운 수많은 아이들이 당신을 향해 “안녕!” 또는 “야(임마)!”라고 소리친 뒤 깔깔거리고 웃어댄다면 어떤 기분이 들지 말이다. 그런 소리를 들어본 사람이라면 아이들에게 외국인을 향해 ‘헬로’라고 말 걸어 보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예의 있는 언행은 피부색이나 인종에 따라 달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조선대 독어교육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



양승찬

최근 독일의 소도시 쾰른에서 국제아트페어 21과 화살표가 그 방향을 일러주고 있었다. 그 켈링턴 분위기와 조용한 준비상황은 그 다음날 오후 4시에 열리는 현장이라고 보기에야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실망스러웠다. 이 정도의 흥분과 과연 관객이 있을 것인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런데 다음날 오후 4시 오픈 시간이 다가오자 어디서 그렇게 많은 인파가 밀려오는지 관객이 많은 대형 아트페어

독일을 빛낸 ‘켈른 아트페어’

들의 몸에 배인 예술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이라고 이번 쾰른아트페어 21을 통해 느끼게 되었다.

그동안 나인켈러리에서는 일본·싱가폴·중국·대만 등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국제시장에 다리를 놓았다. 그 성과는 이 지역 작가의 가능성으로 이어져 국제무대의 관심과 스타작가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미술은 그동안 국제비엔날레가 열리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작가들의 국제무대 진출은 귀한 일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아트페어 시장은 세계적으로 미술시장을 움직이는 화랑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네트워크를 이루며 작가들이 국제무대에서 작품으로 승부할 수 있는 매력적인 현장이다.

70여 개의 국제적인 화랑들이 대표 작가들을 선정하여 참여한 이번 쾰른 아트페어 21은 규모가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국제 아트페어인 KIAF에 비하면 작은 규모이다. 전시장에 도착하자 그 흔한 안내 현수막이나 배너와 같은 전시홍보물 하나 보이지 않았고 겨우 입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밀물처럼 들어와 작품을 보고 파리를 즐기는 것이었다. 문화적 충격이었다.

우리가 작품을 투자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면, 그들은 자신의 철학과 맞는 지점을 작품 속에서 발견하려 하였고 그 지점이 발견되면 구매하게 되는 상황을 종종 보게 되었다. 외국인이나 맥주를 들고 전시를 관람하면서 작품을 보고 즐기는 독일인들의 모습에서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인 문화 선진국의 시민다운 면모가 드러나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번 아트페어를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준 것이다. 국내 무대에서 작품검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작가들은 실망과 좌절에 빠지지만 앞으로 새로운 미술시장의 도전은 작품에 대한 의지와 참작열을 북돋아 주는 데 있다. 광주에서도 국제아트페어를 개최하여 문화수준을 올리고 감춰진 미술시장을 더욱더 널리 알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쾰른 아트페어 21, 많은 추억이 있지만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의 미술에 대한 관심 어린 눈빛이다. (나인켈러리 관장)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시설

이번엔 CT 연구원 광주 설립 뒤집기인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종합계획에 명시돼 있는 문화콘텐츠기술(CT·Culture Technology)연구원의 광주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문광부가 마련한 문화기술 R&D역량강화 종합방안(안)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5대 광역권별로 특화된 CT 연구거점을 시범조성하기 위해 1단계로 권역별 센터에 각각 10억원씩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단계 방안에는 CT 연구원 건립을 명시해 중장기 과제로 남겼다. 이는 사실상 1단계 시범사업 성과 여부에 따라 CT연구원의 설립을 보류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문광부가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에 진행중인 CT 연구원설립에 비타당성 연구용역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단계로 CT 연구원의 종합기능을 전국 권역별로 분산해 CT 연구원의 설립근거를 없애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백색가전 증산 광주 경제 견인차 기대한다

광주 하남산단 가전업체들이 증산 체비에 나섰다. 삼성광주전자와 대우일렉트로닉스는 내년 냉장고와 세탁기 생산량을 올해보다 최대 20% 늘리기로 했다.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공격적인 경영에 나선 것이다.

내년엔 삼성과 LG, 대우 등 가전 3사 가운데 삼성, 대우 2개사의 분사가 하남산단에 들어선다. 이들 기업이 경기회복에 맞춰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어 ‘백색가전의 하남 르네상스 시대’가 기대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의 증산과 분사 이전은 지역 협력업체들에게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 협력업체 상당수가 생산설비를 늘리고 내년 매출 전망을 높이고 있다. 수도권에 위치해 있던 협력업체들도 광주·전남으로 이주를 서두르고 있다. 전남도는 19일 성문정밀 등 수도권 17개 대우일렉 협력사와 19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업체들은 나주, 담양 등지에 공장을 설립해 대우일

률(CT)의 육성을 위해 예산 771억원을 확보해 놓고도 정작 CT연구원 설립에 산은 반영하지 않은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CT 연구원은 문화전당의 취약한 부문인 문화콘텐츠 연구·개발·상품화를 담당할 기관으로 문화수도 조성사업의 핵심 인프라다. 또한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할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화기관과 연계해 문화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CT 연구원의 설립이 무산된다면 문화수도는 빈 껍데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CT 연구원의 광주 건립은 정부의 약속사항으로 문화중심도시 조성종합계획에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뚜렷한 이유없이 이를 뒤집는다면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세중시 수장으로 정부의 신뢰성은 땅에 떨어진 상태다. 대국민 약속을 밥 먹듯이 쉽게 어기는 정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력에 납품하게 된다. 금융위기 이후 침체에 빠졌던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백색가전은 자동차, 광산업과 함께 광주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한때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부가가치가 높은 프리미엄 제품을 생산하면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가전산업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세계 유수의 가전업체는 가전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소로봇뿐만 아니라 세탁, 방범로봇, 노약자도우미로봇 등 생활 속 모든 가전제품에 로봇이 들어가 사소한 일까지 해결해주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

광주를 가전로봇 메카로 키우는 허브 역할을 할 가전로봇지원센터가 최근 광주·전남으로 이주를 서두르고 있다. 전남도는 19일 성문정밀 등 수도권 17개 대우일렉 협력사와 19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업체들은 나주, 담양 등지에 공장을 설립해 대우일

無等鼓

이번엔 마야인들의 종말론이다. ‘2012년 종말론’을 다룬 할리우드 재난 블록버스터 ‘2012’가 무서운 기세로 흥행 물의를 하고 있다. 약 3천여 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이 투입된 이 영화는 ‘투모로우’ ‘인디펜던스 데이’를 연출한 재난 영화의 귀재 롤랜드 에머리히가 감독을 맡았다.

2012년 지구가 멸망한다는 ‘2012 종말론’은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서 출토된 마야 달력이 기원전 3114년 8월 시작해 2012년 12월 21일에 끝나는 것에서 출발한다. 영화 ‘2012’는 마야인들의 종말론에서 착안한 시나리오를 따라간다. 태양 흑점의 폭발로 튀어나온 중성미자가 지구 내부를 뚫어오르게 해 엄청난 지각 변동과 화산 폭발, 지진, 쓰나미가 일어난다는 설정이다.

에머리히 감독은 자신의 주목기를 살려 ‘투모로우’(기상 이변), ‘포세이돈 어드벤처’(해저 지진), ‘볼케이노’(화산 폭발) 등 온갖 재난 영화들의 역기스를 ‘2012’ 안에 담았다. 현란한 컴퓨터

그래픽 기술과 거대한 스펙터클로 LA를 침몰시키고, 에베레스트 산맥마저 물에 잠기게 한다. 엘로스톤 국립공원은 불바다가 되고 쓰나미에 밀려온 항공모함이 백악관을 덮친다. 한순간도 눈을 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전개와 관객을 압도하는 영상은 무의식적인 공포를 심기에 충분하다.

물론 종말론을 다룬 영화가 ‘2012’가 처음은 아니다. 노스 트라다무스가 인류의 종말을 예언했다는 1999년 무렵에는 ‘딥 임팩트’(1998) ‘에마갯돈’(1998) ‘엔드 오브 데이즈’(1999) 등 인류 멸망을 다룬 영화가 한때 붐몰을 이루기도 했다. 그만큼 현실에 떠도는 종말론은 영화의 소재로서 공감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무리 영화의 상상력이라고는 해도 ‘인류에게 3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옥박지르는 듯한 줄거리는 보는 이로 하여금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긴다. /김일환 여론체부장 kih8@kwangju.co.kr

‘2012’



Table with 2 columns: 광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t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 for the Kwangju Ilbo newspaper.